

영광 대마산단에 마이크로-모빌리티 연구단지

<전기 동력 1~2인승 개인용 이동 차량>

3년간 400억 투자, 3·4륜 차량 개발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모빌리티 생태계'가 조성된다.

마이크로-모빌리티는 근거리, 중거리 주행을 가능한 전기를 동력으로 한 1~2인 탑승을 위한 개인용 이동 수단 차량을 말한다.

전남도는 영광군,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 연구한 마이크로-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사업이 2014년 신규 국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4륜의 마이크로-모빌리티 개발에 올해부터 3년간 400억원이 투자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마산단 7만6000㎡ 부지에 연구 시설물, 인증·평가 장비가 들어서고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인증·평가 서비스 시설이 마련된다.

이미 완성도 높은 마이크로-모빌리티 개발 경험이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인 미국 MIT 미디어 랩



(Media Lab)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이-모빌리티 랩(e-Mobility Lab)을 운영하는 카이스트(KAIST), 이-모빌리티(e-Mobility) 디자인센터를 신규 설립한 홍익대,

국내 증견 자동차부품 개발 및 생산 기업인 ㈜만도 등이 영광 대마산단에 설립되는 마이크로-모빌리티 지원센터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 등과 함께 연구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4월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선도시'로 선정된 영광군은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가 미흡하자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수직계열화된 구조를 보이며 일부 선택적 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자동차산

업에 일대 전환점이 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산업 단지에 동지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현범 전남도 창조과학과장은 "도심형 1~2인승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3~4인승의 포괄적인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전남도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합리적 교통문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bung@kwangju.co.kr



현대삼호중, 새해 첫 선박 인도

길이 255m 컨테이너선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3일 올해 들어 첫 번째 선박을 인도하며 새해 힘찬 출발을 알리는 벗고 동을 올렸다.

이 선박은 그리스 테나리스사로부터 주주한 길이 255m, 폭 37m, 깊이 22m 크기로 축구장 2개 규모의 컨테이너선이다.

선명은 'SEADREAM'호(사진)로 길이 6m 정도의 컨테이너 5000개를 실을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올해는 총 36척의 선박을 인도해 매출 4조5000억원과 주주 4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지난해보다 길이가 늘어나 지역과 협력사들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테나리스사는 2000년 이래 이 선박을 포함 총 16척을 현대삼호중공업에 주문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영남=대성수기자 dss@

신안 증도 갯벌도립공원 면적 대폭 확대

명칭도 신안갯벌공원으로

전국 최최신 신안 증도갯벌도립공원(道立公園)의 면적이 대폭 늘어난다고 명칭도 변경된다.

전남도는 5일 신안 증도갯벌도립공원 명칭을 신안갯벌공원으로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증도와 압해 일부 등 12.82km²에서 10배 이상인 144km²로 확대됨에 따라 명칭에서 증도를 빼고 '신안'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엔 새로 팔구포(八口浦)해역(7만3239km²)이 포함됐다.

팔구포는 신안군 도초도, 안좌도, 옥도, 장병도, 문병도 등으로 둘러싸인 해역으로 조선평 8개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갯벌공원은 팔구포 지구와 압해·

증도지구(70.024km²)로 나뉘어 신안군이 관리하며 전남도는 관리 운영 및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립공원의 신안갯벌공원을 국립공원 승격과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신안갯벌공원으로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세계 5대 습지 중 하나인 서남해안갯벌은 원시성 유지와 함께 다양한 대형 저서동물(153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6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보성 벌교갯벌과 강진 강진갯벌, 신안 거제도 해역 등 도내 갯벌과 해안에 대한 도립공원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kwangju.co.kr



순천상의 신년인사회

영록·유윤근·이낙연·주승용·주영순 국회의원, 지역 상공인들이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순천상공회의소 2014년 신년인사회가 지난 3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려 박준영 전남지사, 송영수 순천상의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김광진·김영록·유윤근·이낙연·주승용·주영순 국회의원, 지역 상공인들이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순천시 제공)

해남에 전북 신제품 보급센터 건립

국립수산과학원, 화봉리 일대 2만2000㎡ 규모

산란 사육동·종묘동·해상 가두리시험장 들어서

전북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전북 신제품 보급센터'가 해남군에 건립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성장성이 빠르고 고수온 등 환경에 강한 신제품 육종 전복을 양식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전북 신제품 보급센터(가칭)'를 해남군에 짓는다고 5일 밝혔다.

보급센터는 해남군 화봉리 화봉리에 2만2843㎡ 땅과 20ha 규모 해상 전복가두리시험교습어장 등으로 지어진다. 이미 전복 사육동, 산란·유생 사육동, 종묘 생산동, 부대시설

등이 중요도에 따라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전북 신제품 보급센터 건립 계획을 확정된 후 해남, 진도, 완도 등 3개 군의 신청을 받아 생물사육 환경, 지자체 지원 의지와 추진 건립 땅 매입 여부 등을 종합한 결과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

전북 신제품 보급센터에서 생산된 육종 전복은 양식 생산성을 높여 전북양식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전복 생산량은 2003년 1065t(620억원)에서 2012년 6607t(2400억원)으로 최근 10년 동안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품종 열성화와 어장환경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폐사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반 전복보다 30% 이상 성장성이 빠르고 고수온 등의 환경에 강한 신제품 육종전복을 유전자 조작 없이 첨단 선발육종 기술로 개발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짚풀공예 초고장 등 7건 道 문화재 됐다

곡성 초고장 등 7건이 도(道) 지정 문화재로 신규 지정됐다.

지정된 문화재는 무형문화재 4건, 유형문화재 3건 등이다.

무형문화재는 짚과 풀로 전통 생활용구와 농기구 등을 만드는 초고장(草蓆匠, 55호), 전통 저장도구인 옹기를 만드는 옹기장(甕器匠 37호), 떡살과 다식판을 만드는 문양각 기능인 목조각장(木彫刻匠 56호), 광양만을 중심으로 전승돼 온 어로 노동요인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57호)

등이다. 유형문화재는 곡성 서산사 목조 관음보살좌상(315호), 강진 고성사 목조 삼불좌상 및 복장유물(316호), 광양 백운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317호)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향 전남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찾고 밝혀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문화관광 명소와 교육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중얼까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